

[논문요지]

이밀(異密) 아르군 및 그가 호라산(呼羅珊) 등지에서 진행한 두 차례 호구조사

초크트 (내몽고대학 몽골사학과)

몽골제국은 세계적인 대제국이였다. 몽골제국 시기, 칭기즈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지속적인 대외팽창을 진행하여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 여러 지역을 정복하였으며 사상 최대의 대제국을 건립하였다.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몽골의 정복 활동은 동방에서는 “몽고 내습(蒙古襲來)”으로, 서방에서는 “타타르 선풍(韃靼旋風)”으로 불리우고 있는 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몽골제국의 대외팽창과 더불어 몽골인을 위주로 하는 북아시아 초원 유목민족들은 아시아의 내륙을 벗어나 세계로 향하였으며 세계 각 민족 사이의 지리적, 언어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상호 이해와 융합을 촉진하였으며 전례 없는 대일통(大一統)의 국면을 이룩하였다. 이런 과정은 인류의 세계화를 대거 촉진하였으며 세계사의 발전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졸고에서는 이밀(異密) 아르군(阿兒渾)이 서아시아에서의 일부 역사적 활약상을 분석함으로써 몽골의 해당 지역에 대한 통치를 확립하는 과정 및 그 특징에 대하여 진일보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아아혼은 몽골 오이라트(斡亦剌惕, Oirat)부 귀족 출신으로서 유년시기부터 몽골 칸의 조정에서 일하였고 훗날 서아시아에 파견되어 제 5 대 호라산(呼羅珊, Khurasan) 이밀로 부임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 서아시아와 몽골고원을 사이를 왕래 하면서 몽골제국이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통치질서의 건립과 확고를 위하여 수많은 정책 건의들을 올리고 특수한 공헌을 이바지하였다. 특히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호라산 등 지역에 대한 호구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현지에 맞는 세수정책을 제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몽골이 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효과적인 통치를 확립함에 있어서 튼튼한 기초를 닦게 되었다.

아아혼이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역사적 활약상을 연구하는 것은 몽골제국이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통치와 관리 실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더러 더 나아가 몽골제국의 다원적, 세계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학술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翻譯：朴賢)